

아트센터,
도시의
브랜드가 되다

소문난 공연장을 찾아서
-국내편
(4)충무아트홀



지난 2005년 서울시 구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건립된 충무아트홀 전경. 차별화된 콘텐츠와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충무아트홀 제공>

이종덕 충무아트홀 사장

어린시절 문화체험 미래 영향
콘텐츠로 시민 관심 이끌어야

“중장기 로드맵이 없는 아트센터는 미래를 꿈꾸기 어렵습니다. 아트센터들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려면 청사진을 제시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올해 1월 6년간 몸담았던 성남아트센터에서 충무아트홀로 자리를 옮긴 이종덕(76) 사장은 새로운 도전에 부풀어있다. 지난 1972년 문화공보부 소속으로 공연행정을 맡으면서 공연계와 인연을 맺은 그는 그간의 노하우를 토대로 충무아트홀을 공연예술의 메카로 가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충무아트홀 개관 20주년이 되는 2025년까지의 미래를 담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제시했다. ‘도전’(Challenge) ‘긍정’(Positivity) ‘배려’(Care)를 키워드로 하는 이른바 ‘CPC전략’이다.

올해 첫 단계로 ‘뮤지컬 중심극장’에서 공공극장으로의 변신을 시도한다. 편향된 이미지로는 명품극장으로 거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국립발레단과의 공동사업인 ‘발레아카데미 신설’, 유라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자 금남세)와의 업무협약, ‘삼머 클래식 페스티벌’, ‘서울뮤지컬 페스티벌’ 등을 추진한다.

“지난 1995년 예술의 전당 사장 재직 당시 후원회 결성을 위해 기업인들을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인들이 공연장을 자주 찾지 않는 탓인지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듯’ 어색해 하더군요. 어린 시절 문화체험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아트센터들은) 시민들의 문화마인드를 심어주는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 사장은 연세대학교 사학과 출신으로 문화공보부 정책연구관, 서울예술단 이사장, 예술의 전당 사장, 세종문화회관 사장, 성남아트센터 사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문화CEO다.

/서울=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누구나 언제나 만나고 즐기는 ‘문화사랑방’

서울 구단위 최초 건립...가동률 97% ‘작지만 강한’ 공연장
차별화된 기획으로 160만명 방문...공연예술 메카로 성장

서울시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마음만 먹으면(?) 거실이나 동네에서 유명 음악인들이 출연하는 음악회를 즐길 수 있다. 중구문화재단 충무아트홀(사장 이종덕·이하 충무아트홀)의 ‘찾아가는 동네 음악회-사랑방 콘서트’ 덕분이다. 사랑방 콘서트는 충무아트홀이 예술로 문화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으로 기획한 공연이다.

지난 5월 19일 서울 중구 화현동 남산SK리더스뷰 로비에서 열린 음악회가 좋은 예다. 입주한지 1년된 이 아파트의 주민 정경채(57)씨는 데면데면한 이웃 주민들과 안면을 뜨기 위해 사랑방 콘서트를 두드렸다. 이날 아파트 로비에 모인 130여 명의 주민들은 서울클래시컬 플레어 이어즈 실내악단이 연주하는 헨델 ‘파사칼리아’, 쇼팽 ‘녹턴’, 엘가 ‘사랑의 인사’ 등의 선율을 푼 빠져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무엇보다 이날 콘서트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과 경험을 선사했다. 입주한지 1년이 넘도록 이웃 주민이 누구인지 모른 채 지내다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인사를 나누었기 때문이다.

서울시 중구 흥인동에 위치한 충무아트홀은 서울 구(區)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설립된 중구문화재단(이사장 최창식 중구청장)이 운영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이다. 지난 2005년 ‘서울의 중심, 문화의 중심’을 표방하며 문을 연 충무아트홀은 현재의 중구 지역(건천동)에서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시호에서 따왔다. 인구는 14만여 명에 불과하지만 국립극장, 정동극장, 명동, 호암아트홀, 덕수궁, 롯데호텔, 남대문 시장 등을 끼고 있어 유동인구가 하루 평균 300만 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에서도 충무아트홀은 단연 강박의 문화아이폰이다. 특히 올해 1월 공연계의 대부로 불리는 이종덕 사장(전 성남아트센터 사장)을 전격영입해 차세대 국내 대표 공연장으로서의 성장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지하4층 지상6층 규모인 충무아트홀에는 대극장(1231석), 중극장(블랙·327석), 소극장(블루·250석), 갤러리, 수영장, 헬스장 등이 들어서 있다. 개관 당시 809석이었던 대극장은 경쟁력 있는 대형공연물을 유치하기 위해 2008년 리모델링을 거쳐 지금과 같은 객석규모를 갖추게 됐다.

충무아트홀의 경쟁력은 ‘작지만 강한 아트센터’라는 점이다. 예술의 전당,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LG아트센터, 성남아트센터 등 수도권 내로라 하는 공연장들과의 경쟁에서도 수많은 뮤지컬 마니아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공연장 가동률은 97%(평균 객석 점유율 68%)로, 지난 5년 간 총 관람객 160만 명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한해 예산이 수백억원(올해 예술의 전당 예산 710억원)에 달하는 대형 공연장과 달리 64억원(기획공연 10억 안팎)의 작은 규모로 거둔 성과다.

특히 충무아트홀은 뮤지컬 성장의 주역이었을 뿐 아니라 국내 공연산업의 외연을 넓히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 ‘피핀’, ‘울썬업’, ‘헤어스프레이’, ‘미스 사이공’, ‘미녀는 괴로워’, ‘삼총사’ 등 지난 5년간 선보인 총 80여편의 뮤지컬 라인업이 이를 뒷받침한다. 올해는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삼머클래식 페스티벌’ 등 고품격 공연들도 관객들을 만난다.



‘사랑방 콘서트’는 문화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중극장 블랙에서는 음악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국내 정상급 뮤지션들의 콘서트 시리즈가 이어져 전 공연 매진사례를 기록했다. 특히 뮤지컬 ‘즐거운 인생’, ‘마이 스키퍼리 걸’ 등 실험적인 작품들을 통해 뮤지컬 전문 극장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했다.

무엇보다 충무아트홀의 강점은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구민들의 문화사랑방을 표방한 설립미션을 실천하기 위해 사랑방 콘서트를 비롯해 실버국악공연, ‘충무 어린이 영아뮤지컬 아카데미’, 장애우를 위한 ‘연극놀이’, ‘이석준의 뮤지컬 이야기쇼’, 인문학 강좌 ‘역사와 문화로 본 중구이야기’ 등 지역 밀착형 예술프로그램들을 제공해오고 있다.

충무아트홀의 성공은 전국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1순위로 떠올랐다. 지역민들의 문화향유공간으로 키워낸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와 지원, 그리고 차별화된 컨셉과 다양한 콘텐츠는 21세기 아트센터의 지향점이기 때문이다. /서울=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깨끗하고 건강한 캐나다
청정자연에서 탄생한 -
Natural Factors (내추럴팩터스)
드디어 한국에서도 공식 판매 합니다!

청정자연 캐나다에서 태어난
50년 역사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50여 개국으로 수출하여 글로벌
시장에도 우수한 품질확신!

2010년 12월 내추럴팩터스를
국제약품이 공식 판매 합니다!

청정자연에서 건강을 찾아 연구하는 캐나다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내추럴 팩터스
50년 내추럴팩터스 역사를 담았습니다!



캐나다 대표 브랜드 내추럴팩터스는 수십만 평의 자체 허브농장에서 재배한 자연원료를 최첨단 자체연구소에서 우수한 연구기술진이 탄생시킨 고품질 명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원료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은 50여년 동안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철저하고 꼼꼼한 선택!-내추럴팩터스입니다!

Natural Factors 한국총판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공업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48번지
http://www.kukjepharm.co.kr

제품문의 : (031) 781.9081 (고객지원팀)